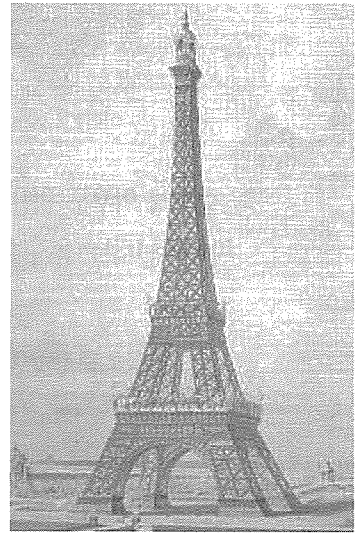


# 안방에서의 환상여행



**서**울의 K여중 2년생인 하늘이는 수업을 마치고 집에 와보니 집안이 비어있다. 컴퓨터의 버튼을 누르니 엄마와 아빠의 얼굴이 브라운관에 나타나고 곧 이어서 엄마의 음성이 들린다.

“갑작스런 일로 아빠와 함께 외출한다. 혹 귀가가 늦어지면 저녁 끼니는 네가 알아서 해결하거라. 챙기기 귀찮으면 전화로 주문해서 먹고 싶은 것 먹도록.” 저녁까지는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 무료해진 하늘이는 얼핏 생각이 떠오른다. ‘모처럼의 주말 오후를 싱겁게 보낼 수는 없지. ‘여행’이 나 해야지’

그는 조금 전 학교에서 함께 돌아왔던 단짝 친구 진희에게 전화한다. “우리 엄마가 외출해서 나 혼자 있는데 지난번 너의 집에서 보려다가 그만둔 플로피(Floppy)디스크 가지고 빨리 오지 않을래?” 아파트 옆 동네 사는 진희는 금방 달려왔다. 그 사이 하늘이는 홈 컴퓨터의 전자쇼핑 버튼을 눌러 슈퍼마켓에 진희가 좋아하는 바나나와 아이스크림을 주문해 두었다. 슈퍼마켓 안내양은 주문품의 가격을 일러주고 카드로 결제를 확인한 후 20분 후 배달하겠노라고 말하며 상냥한 얼굴로 인사를 했다. 홈 쇼핑, 홈 बैं킹은 물론

집이 비었을 때 사람 대신 전화를 받아주고 도난이나 화재방지 등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이 홈 컴퓨터다. 하늘이는 학교 과제나 공부를 도와주는 이 컴퓨터가 그지없이 고맙다. 세계 각 지방의 지리와 기후며 특산물 등 모든 지식을 버튼 몇개만 누르면 척척 알려주는 이 홈 컴퓨터야말로 없어서는 안 될 만능 요술쟁이인 것이다.

집 밖에서 무선전화기로 명령만 내리면 집 안의 전기밥솥이나 가스레인지, 세탁기, 식기세척기, 전자레인지, TV의 음성인식장치, 어린이 학습기기 등의 고마움을 강조할 때마다 하늘이는 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 왜냐면 이들 기기에는 한결같이 마이크로 컴퓨터가 내장된 것들이라는 것을 알고있기 때문이다.

## 시뮬레이션 트립

하늘이는 진희가 가져온 플로피디스

크를 컴퓨터에 꽂고 모의여행(simulationtrip)이라고 입력시키자 컴퓨터는 모의 TV화면 여행영상기로 바뀌었다.

진희가 자동차여행 버튼을 누르고 화면에 ‘진진’이라고 쓰여진 곳에 라이트펜(light pen)을 갖다 대자, 마치 그들이 타고있는 자동차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화면의 거리 모양이 후진한다. 이어서 파리 시내를 달리면서 컴퓨터 건반으로 ‘서쪽’ ‘개선문’이라고 입력한 다음 출발버튼을 눌렀다.

그러자 그들의 자동차(화면여행이므로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이내 파리의 명소인 개선문과 상제리제의 지리가 나타나자 그들은 저절로 탄성을 지른다.

이 때 “에펠탑은 어디지?”하고 하늘이가 설레이는 목소리로 묻는다. “기다려봐 곧 나온다.” 진희의 희희낙락한 대답. 이어서 노틀담사원이 나오고 세느강을 따라 그들의 자동차는 달려가더니 바야흐로 에펠탑에 이른다.

“아! 에펠탑이다.” 하늘이의 외침에 진희는 “그래, 네가 보고 싶어하던 에펠탑이니 좀 더 자세히 보렴”하면서 차를 멈추게 한 다음, 지도 위에 나타난 에펠탑에 ‘확대’ 버튼을 누르니 에펠탑 전경이 클로즈업되어 나타난다.

**시**뮬레이터 집나지움(simulator gymnasium)이 시내에 등장한지는 몇해가 지났다. 건물 전체에 갖가지 시뮬레이터장치를 채운 레저와 스포츠용 고층 빌딩이 있는가 하면 소규모의 컴퓨터 TV여행방이 생겨났다. 몇년 전의 노래방이나 PC방 등이 컴퓨터 TV여행방으로 바뀌어 가는 추세다. 게임방, 노래방을 찾던 학생들도 이 TV여행방을 선호하게 되었다.

가정에서 TV여행이 가능하게 된 것은 개인용 마이크로 컴퓨터나 라이트 펜, 플로피 디스크의 출현 덕택이다.

플로피 디스크가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것은 1980년대 초인데 이것은 컴퓨터용 기억장치로 45회 전용 레코드판 모양의 특수 폴리에스테르 필름판이다.

현재 2002년의 기술로는 직경 20cm의 플로피 디스크에 약 5백만자에 해당하는 정보를 저장해둘 수 있다. 5백만자라면 A4용지 2천5백매에 가득 채울 수 있는 양이다. 이 플로피 디스크는 모든 TV상점에서 판매되고 있는데 이를 마이크로 컴퓨터에 꽂으면 지구상의 어떤 곳으로도 자동차 여행이나 헬리콥터 여행이 가능해지게 되었다.

전기줄이 달린 연필처럼 생긴 막대 모양의 라이트 펜은 그 끝으로 TV화면을 건들기만 하면 TV화면에 문자나 그림을 그릴 수 있고, 또 신호 건반 위에 접촉하면 건반을 누르는 역할을 하는 기기이다.

### 마이크로파의 비밀

**하**늘이와 진희는 파리여행을 마친 후 제주도도 TV여행을 한번 더 했다. 이번엔 자동차가 아닌 헬

리콥터로 하는 여행이었다. 그간에 배달되어온 바나나와 아이스크림을 먹어 치웠는데도 저녁시간이 되자 출출해지기 시작한다. 이제 그만 집에 가겠다는 진희를 하늘이는 붙들면서 “너희 집에 연락드리고 나와 함께 엄마 올 때까지 있어주지 않을까?”

저녁시간이 되니 배도 고파오는데 혼자 밥먹기 싫어 마음이 약해진 진희는 망설이다가 집으로 전화해서 하늘이와 공부하다가 여기서 저녁밥을 먹고 가겠노라고 한다. 진희가 엄마의 승락을 받고 수화기를 놓는 순간 하늘이는 달려가 진희를 활짝 껴안으며 고마움을 표시한다.

하늘이는 컴퓨터의 전자쇼핑 버튼을 누른다. 슈퍼의 안내양이 나왔다. 하늘이는 텔레비전 푸드(TV food)를 주문한다. 텔레비전 푸드란, TV를 보면서 요리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식품으로 며칠 전 엄마가 좋아하는 TV연속극을 보느라고 처음으로 주문해서 먹어보았던 음식이었다.

15분 후 식품은 배달되었다. 이를 본 진희는 어리둥절해 하면서 스티로폼 용기에 담겨진 식품을 보면서 “이게 뭐니?”하고 묻는다. “응, 그거 TV푸드야. 배고프지? 잠시만 기다려.”하면서 투명한 비닐종이가 덮여진 식품을 전자레인지에 넣고 버튼을 누른다.

“뭐 TV음식이라고? 난 처음 듣는다.”

“응 그런게 있어. 2분이면 돼. 너도 알아두면 적당한 때에 너의 엄마에게 효도할 식품이 될거야” 하늘이는 의기양양한 얼굴이 되어 말한다.

“이게 그렇게 맛있니? 거창하게 효도까지 들먹이게”

그러는 사이 가스레인지에서 요리 끝이라는 신호음이 들리고 뜨끈뜨끈한 음식이 되어 나왔다. “우리 집에선 컴퓨터가 1등 공신이지만 우리 엄마에겐 이 가스레인지가 더 없는 효녀야. 자어서 먹자. 배 고팠지?”

하늘이의 이 말은 사실이었다. 엄마는 대체로 외출이 잦다. 동창회 모임에다, 헬스클럽, 게다가 병원에 호스피스로 자원봉사까지 하신다.

“그래, 우리 엄마도 이 전자레인지 많이 혹사시켜” 진희의 웃음 땀 대답이다.

“그런데, 너 이 전자레인지에 숨겨진 비밀을 아니? 그건 마이크로파야.”

한 반에서 1~2등을 서로 다투는 그들은 과학에서만은 항상 앞서는 진희의 말에 하늘이는 음식을 먹다말고 컴퓨터로 가서 마이크로파를 검색한다.

전자레인지 속의 마이크로파는 1초 동안 약 20억회 진동한다. 그러므로 음식물에 함유된 물 분자가 이 전파에 맞춰 1초동안 20억번이나 요동을 친다. 그 결과로 생긴 마찰열 때문에 음식물은 안쪽에서부터 데워지고 그릇은 전혀 가열되지 않으면서 음식물만 데워지기 때문에 눈 깜빡할 사이에 음식물이 뜨겁게 요리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낸다.

“진희야 고마워. 그 비밀을 깨우치게 해줘서”

“넌 정말 멋져. 특히 그 기민성엔 손들었어.”

그 둘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마주 잡았다 ㉟

池 棋 旭 <자유기고가>